

2024 준총회 업데이트



이번 주 준총회의 절정은 수녀회의 다양한 단위체 보고 나눔이었습니다. 각 단위체 보고는 정보가 풍성하고 창의적이었으며 2022년 총회의 공동 비전에 대해 우리를 희망적이며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힘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직면하는 도전에도 우리의 투신은 굽힘이 없습니다.

미국 출신의 린 레보 수녀, CSJ는 “셀피 촬영하기: 감정과 동반,” 소속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통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녀의 말은 지도자들인 우리에게 와 닿았고, 우리 수녀들에게 어떻게 환대, 소속, 심리적 안정감의 문화를 육성할지 곰곰이 생각해볼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리더십 접근법을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준, 계몽적이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세션이었습니다.

10월 9일에는 인도 노틀담 진출과 방갈로르의 소피아 고등학교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피아 학교 학생들은 인도의 노틀담 시작과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멋진 율동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소피아의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대화는 풍성하고 유익했습니다. 그날 늦게 우리는 방갈로르 시바지나가르의 성모님 바실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방갈로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였으며 주에서 소 바실리카로 승격된 첫 번째 성당이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건강의 성모님 성당으로 유명해서 수 천명의 사람들이 기도와 순례를 위해 찾아옵니다.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교지, 소마나할리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수녀들이 운영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프로젝트 “알로이시아 마네”(알로이시아의 집)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불우한 환경의 소녀 여덟 명에게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을 제공합니다. 수녀들의 헌신은 참으로 훌륭하며 소녀들이 멋진 춤과 노래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의 열정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회의의 하루 하루가 우리의 세계적 자매의 유대를 의미있는 체험으로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